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장명재 후보

“포천에 전철을 유치하고 경원선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영우 후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박윤국 후보

“연천·포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배기목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는 배기목입니다. 저 자신 그렇게 말주변이나 이 자리에 사회를 보는 제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선람을 뽑는 날이 벌써 코앞에 닥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4월 9일이네요, 우리 포천·연천 지역을 그야말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터로 만들기 위한 선람을 뽑는 날이 벌써 코앞에 닥쳤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이신, 우리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오래전부터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선람을 뽑는 데 과연 누가 적당한 것이냐, 누가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일까 하는 점을 진지하게 고심하면서 후보자의 면면을 신중하게 살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우리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자들의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빠르게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신문사 주최 제18대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는 공적선거법 제9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이고, 기왕에 쌀쌀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후보자 면면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밝혀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회의 진행 규칙입니다. 우리 후보자님들과 패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모두 발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2분30초로 패널 공통질문, 패널 개별질문, 방청객 질문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답변은 2분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님 보시는 자제로 단상 중앙에 LCD판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든지 사회자가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은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들과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질문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약이 있는 관계로 질문은 세분만 받겠습니다.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서는 제외하고 공통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배부해드린 서면질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질문을 하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서면질의로 들어온 자료를 사회자가 선람을 해서 역시 세 분의 후보자에게 골고루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칙 하에 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 및 패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서면질의의 답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선람을 뽑는 총선에 앞서서 각종 이와 같은 토론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토론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토론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사회자의 임무가 오늘 100분 시간을 주임무를 부여받았습니

다. 사회자의 능력도 시간 조율을 잘해서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니까 시간을 콘트롤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00분 즉, 12시10분 경에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소 시작이 늦었습니다만 가끔씩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또 우리 패널 여러분들 긴장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부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힌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발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의 정경발표지요, 함축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3분이고 앞에 있는 LCD판별을 봐주시면서 시간조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타자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인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기호 1번 장명재입니다.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가 경영 능력을 익혔고, 정치권에 들어와 당의장 경제특보, 그리고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국정의 중심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 포천의 힘을 얻어 반듯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나이보다 키우준 제 고향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수도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6년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포천 26위, 연천 29위로 수도권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청와대, 정부, 국회에서 인정받는 경영 능력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낙후된 포천·연천이 아닌 성장하는 연천·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연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3단계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포천·연천은 중복된 규제로 발전에 속도가 더딥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꼭 막힌 포천·연천을 확 뚫어 버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 기반은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철이 없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에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전철을 유치하고 경원선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확 뚫린 철도와 도로 주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와 돈을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인 지역발전 공헌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역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지역 내에서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연계 사관 기숙사를 건립하고 지역의 초·중·고 우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미 FTA 추진 등으로 농축산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나라 일을 해본 자가 일할 줄 아는 사람 경제전문가.....(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었는데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후보님, 마지막이니까 하실 말씀은 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 말씀 도중에 30초 남았는데 끊어졌는데 죄송합니다. 3단계 성장 전략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보 모시겠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 차례입니다. 부탁합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사랑하는 포천시민·연천군민 여러분, 힘 있는 정당 한나라당에 기호 2번 김영우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동안에 무척이나 뿌려주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너 이상 정치하는 사람은 팔도 보기 싫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포천시는 소득 수준이 27위, 연천은 31위 꼴

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은 발전 계획들이 마구 날발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계획들이 발표됐고, 실현 계획이 서지 않은 정책들이 단순히 MOU만 체결됐고 해서 마치 다된 것처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신도시 구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700만 평이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간항공기 공항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고도 제한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신도시 계획과 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포천과 연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규제가 풀리면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막중한 일을 어떤 후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이나 국회에서 고심단체 하나 만들 수 없는 무소속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인근 접경지역 야당 국회의원들과도 잘 통하는 그런 협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이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입니다. 연천의 군수도 한나라당입니다. 이제 포천·연천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삼박자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포천·연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기목 크게 두 가지 지역 성장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하시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입니다. 무소속 박윤국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기호 3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존경하는 21만 연천·포천 주민 여러

분, 저는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천·포천 주민 여러분들께서 공천해 주신 시민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를 기억 할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포천신문사에 최호열 발행인과 배기목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당 시절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힘있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30여 년 동안에 연천·포천이 어떻게 살아왔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 기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국가에 기대하는 또 이런 지방에 기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몸소 살아남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 연천·포천 이것이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저는 야당 시절로서 지난 6년 동안에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타 후보들이 얘기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1일 교통량이 2만2천대가 넘어서면 국도로써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10만 대에 가까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계획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힘없는 야당 시장이 여야를 뛰어넘으면서 포천에 발전하는 그런 케도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를 강남에서 포천까지 유치하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유치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신도시 350만 평 중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해서 준비한 신도시 사업 150만 평을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특별법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특별법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천·포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